

-三陰三陽과 律呂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  
(한방음악치료의 이론연구 -II-)

李承鉉\* · 白上龍\*\*

\* 경희대학교 대학원 한의학과 박사과정

\*\* 한국한의학연구원 학술정보팀

The Study on Relationship Between  
Sameum-Samyang[三陰三陽] and Yul-yŏ[律呂]

This study inquired into mutual communication point between Sameum-Samyang and Yulyŏ through records. Sameum-Samyang is a technical term of medicine and Yulyŏ is a technical term of music.

The Sameum-Samyang is constituted with Tae-eum[太陰] · Soeum[少陰] · Guoleum[厥陰] Tae-yang[太陽] · Yang-myong[陽明] · soyang[少陽] and a standard that prescribes each name and funtion. The Yul-yŏ is the general name that includes Yang-yul and Eum-yŏ. It is also called Ship-i-yul[十二律] because of constituted with twelve units including Hwang-jong[黃鍾], Tae-joo[太簇], etc.. And it is an element of constituting Korean music with The five-notes[五音].

But there are a few of similarities in two things. Firstly, these two things are specialized by Eum-yang and Five-phases. Secondly, These are composed the same relations as Five-phases to Eum-yang. Thirdly, Each thing is specialized six numbers of yang and six numbers of Eum and the fractional number is the same.

The commonness like these will be expected to studying Korean medicine therapy through music.

본 연구는 三陰三陽과 12律의 상통점에 대하여 문헌적으로 고찰하였다. 三陰三陽은 의학의 전문용어이고 律呂는 음악의 전문용어이다. 三陰三陽은 太陰 · 少陰 · 厥陰 · 太陽 · 陽明

· 少陽 등으로 인체 十二經脈의 작용과 명칭을 규정하는 준거이다. 律呂는 陽律과 陰呂를 합칭하는 말로, 黃鍾 · 太簇 등 십이 개로 구성되어 보통 十二律이라고도 하며, 五音과 더불어

국악에서 음악을 구성하는 요소 중의 하나이다. 그런데, 둘 사이에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 첫째, 둘은 모두 陰陽의 이치에 따라 분화되었다는 것이다. 둘째, 三陰三陽은 五藏과 律呂는 五音과 相互配合하여 서로 五行-陰陽의 관계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 각기 여섯 개의 陽과 여섯 개의 陰 등 12개로 分化하여 서로 分數가 같다는 것이다.

이러한 둘 사이의 공통점은 音樂을 통한 韓方治療法을 연구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I. 緒論

三陰三陽은 太陰·少陰·厥陰·太陽·陽明·少陽 등으로 인체 十二經脈의 작용과 명칭을 규정하는 준거이다. 三陰三陽은 경맥을 지칭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經脈이 분포하는 부위나 性質·作用 등을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律呂는 陽律과 陰呂를 합칭하는 말로, 黃鍾·太簇 등 십이 개로 구성되기 때문에 보통 十二律이라고도 하며, 五音과 더불어 국악에서 음악을 구성하는 요소 중의 하나이다.

三陰三陽은 의학의 전문용어이고 律呂는 음악의 전문용어이지만, 둘 사이에는 많은 유사점이 있다. 첫째, 둘은 모두 陰陽의 이치에 따라 분화되었다는 것이다. 둘째, 三陰三陽은 五藏과 律呂는 五音과 相互配合하여 서로 五行-陰陽의 관계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 각기 여섯 개의 陽과 여섯 개의 陰 등 12개로 分化하여 서로 分數가 같다는 것이다.

이러한 유사점은 음양오행의 이치를 따르는 모든 사물은, 서로 比類되어 상통할 수 있다고

보는 『黃帝內經』의 본旨에 비추어 볼 때,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추측해 볼 수 있다. 그러나 醫學과 音樂學으로 분야가 다르므로, 겉모습만 가지고 속단하기에는 부족한 감이 있다.

이에 본 論文에서는 陰陽五行의 이치를 근간으로, 三陰三陽과 律呂의 本質과 役割에 대하여 고찰함으로써, 둘 사이의 연관성에 대하여 추적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성과는 단순히 삼음삼양과 율여의 연관성에 대한 학술적 검토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音樂을 통한 韓方治療法을 연구하는데 하나의 지침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II. 本論

### 1. 五藏과 三陰三陽의 表裏

오장은 생명활동의 주체로서 五神을 통해 五藏 五行之氣를 조정하여 生命律動의 樞機를 관장한다. 三陰三陽은 經絡의 성질과 분포부위를 결정하는 身形의 層次로서 오장을 안으로 감싸안고 있다. 따라서 陰陽의 이치에 따라 둘 사이의 음양관계를 정하면 오장은 陰, 신형은 양으로 정해지며, 서로 추동하고 보호하면서 생명을 유지한다.

#### 1) 五藏과 升降

오장은 五神의 의지에 따라 五行之氣를 발동하여 인체의 추기를 鼓動한다. 추기의 고동은 하나의 흐름 즉 氣機의 전화를 일으키며, 木火土金水 등 오행지기는 上升과 下降 즉 屈伸을 통해 盛衰를 반복한다. 또 오행지기의 성

쇠는 시간의 흐름과 계절의 변화를 일으키니, 결국 오행지기의 지배를 받는 인체의 모든 氣는 屈伸하면서 前進하는 하나의 律動으로 발현한다. 黃元御는 인체 오행지기의 升降과 그 化生에 대하여 『四聖心源·天人解』에서 다음과 같이 논하고 있다.

“...清濁의 사이를 中氣라고 하니, 중기는 음양 升降의 樞軸으로, 이른바 土이다. 樞軸을 따라 운동할 때, 清氣는 좌측으로 旋回하여 상승하면서 火를 화생하고, 濁氣는 우측으로 轉轉하여 하강하면서 水를 화생한다. 화를 화생하면 뜨거워지고 수를 화생하면 차가워지니, 바야흐로 반쪽 상승할 때는 아직 화를 이루지 못함이니 木이라고 이름한다. 木의 氣가 따뜻할데 상승하여 그치지 않으면서 온기를 쌓아 열기를 이루어 화를 화생한다. 바야흐로 반쪽 하강할 때는 아직 水를 이루지 못함이니 金이라고 이름한다. 金의 기는 서늘한데 하강하면서 그치지 않으면서 涼氣를 쌓아 寒氣를 이루어 수를 화생한다. 水·火·金·木을 四象이라고 한다. ...四象이 돌고 돌아 일년을 거쳐서 일주하는데, ...陽氣가 반쪽 상승할 때는 봄이고 완전히 상승할 때는 여름이며, 陰氣가 반쪽 하강할 때는 가을이고 완전히 하강할 때는 겨울이니, 봄의 생과 여름의 長은 木火의 기이다. ...가을의 收와 겨울의 藏은 金水의 氣이다. ...土는 四象에 상합하니 이를 五行이라고 한다.”<sup>1)</sup>

1) 黃元御, 黃元御醫書十一種·下, 北京:人民衛生出版社, 1999, pp25~26. “...清濁之間, 是謂中氣, 中氣者, 陰陽升降之樞軸, 所謂土也. 樞軸運動, 清氣左旋, 升而化火, 濁氣右轉, 降而化水. 化火則熱, 化水則寒, 方其半升, 未成火也, 名之曰木. 木之氣溫, 升而不已, 積溫成熱, 而化火矣. 方其半降, 未成水也, 名之曰金. 金之氣涼, 降而不已, 積涼成寒, 而化水矣. 水·火·金·木, 名曰四象. ...四象輪旋, 一年

오행지기는 中樞인 土를 樞軸으로 하여, 木火之氣는 上升·發散하여 溫熱을 일으키고, 金水之氣는 下降·沈藏하여 冷寒을 일으키는데, 이러한 과정이 시간의 흐름 속에 연속되면서 生命律動인 生長化收藏으로 발현하는 것이다. 또 上升之氣인 木氣는 봄기운을 일으켜 천지의 기후를 화창하게 하고, 火氣는 여름기운을 일으켜 천지의 기후를 炎烈하게 하며, 金氣는 가을기운을 일으켜 천지의 기후를 清明하게 하고, 水氣는 겨울기운을 일으켜 천지의 기후를 寒冷하게 한다. 즉 오행지기는 升降을 통해 寒熱溫涼을 일으켜 계절의 기후변화를 주도하고, 천지의 氣機변화에 상응하는 인체의 五藏之氣는 升降을 통해 인체의 오장지기를 屈伸시켜 음양 변화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오장의 升降은 인체 生氣의 근본인 精·神·氣·血 등 四寶를 化生하여 生生不息하게 한다. 따라서 精·神·氣·血 등 四寶의 성쇠는 곧 生命의 성쇠를 대변하니, 오장의 升降轉化는 氣勢의 변화뿐만 아니라 生氣의 虛實 및 強弱을 주재하는 生命의 樞機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黃元御의 『四聖心源·精神化生』에 나오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肝血이 따뜻하게 상승하는데 상승하면서 그치지 않고 따뜻함이 뜨거움으로 전화하면 심화를 발생하고, 肺氣가 서늘하게 하강하는데 하강하면서 그치지 않고 서늘함이 차가움을 전화하면 신수를 발생한다. ...陰中에 陽이 있으면 水가 따뜻해져 精이 충만해지고, 陽中에 陰이 있으면 서늘해져 神이 왕성해진다. ...대개 陽氣가 바야흐로 상승할 때는 神을 아직 화생할

而周, ...陽之半升則爲春, 全升則爲夏, 陰之半降則爲秋, 全降則爲冬, 春生夏長, 木火之氣也. ...秋收冬藏, 金水之氣也. ...土合四象, 是謂五行也”

수 없어서 먼저 魂을 화생하고, 陽氣가 온전히 상승하면 魂이 변화하여 神으로 바뀌니, 魂은 神의 初氣이다. 그러므로 '隨神往來'라고 하였다. 陰氣가 바야흐로 하강할 때는 아직 精을 생성할 수 없어서 먼저 魄을 생성하고, 陰氣가 온전히 하강하면 魄이 변화하여 精으로 바뀌니, 魄은 精의 始基이다. 그러므로 '並精而出入'이라고 하였다."<sup>2)</sup>

오장이 이렇게 오행지기의 升降轉化를 통해 精·神·氣·血 등을 化生할 때에, 상하좌우의 위치에 따라 각기 자기의 역할을 분담하여 맞는다. 즉 上升·發散하는 과정에 있어서, 上升之氣는 陰中에서 발원한 陽氣가 方升할 때 나타나고 이는 肝이 담당하며, 發散之氣는 陽氣가 全升할 때 나타나고 이는 心이 담당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收斂之氣는 陽中의 陰氣가 方降할 때 나타나고 肺가 담당하며, 沈藏之氣는 陰氣가 全降할 때 나타나고 腎이 담당한다.

이러한 역할분담 때문에, 오장은 각자의 氣勢를 충실하게 발휘할 수 있도록, 음양의 이치에 따라 적절한 空間的 位置를 차지할 필요가 있다. 신체에서 五藏의 臟器를 담고 있는 體腔은 횡격막을 기준으로 上部와 下部로 나눌 수 있다. 이를 다시 內外로 나누면, 상부는 外部가 되며 하부는 內部가 된다. 陰陽論에 의하여 위치의 空間的 성격에 부여하면, 상부는 陽이고 하부는 陰이며, 또 외부는 陽이고 내부는 陰이다<sup>3)</sup>. 五藏 중 心과 肺는 體腔의 上外部에

위치하여 陽藏이며, 肝과 腎은 下內部에 위치하여 陰藏이고, 脾 또한 陰藏이다<sup>4)</sup>. 다시 여기에 기세를 덧붙이면, 心은 그 기세가 발산을 주도하므로 陽中之陽藏이고, 肺는 기세가 수렴을 주도하므로 陽中之陰藏이며, 腎은 침장을 주도하므로 陰中之陰藏이고, 肝은 기세가 상승을 주도하므로 陰中之陽藏이며, 脾는 모든 것을 포용하는 기세를 띠므로 陰中之至陰藏이다<sup>5)</sup>.

따라서 肝의 상승과 心의 발산은 上向하는 기세를 띠지만, 上升은 下部에서 일어나고 發散은 上部에서 일어나며, 肺의 하강과 腎의 침장은 下向하는 기세를 띠지만, 下降은 상부에서 일어나고 침장은 하부에서 일어난다. 脾의 포용은 모든 기세를 감싸 앗을 수 있으므로, 상승이나 하강 등 어느 한쪽으로 기세가 치우치지 앗을 뿐만 아니라 상하의 위치도 中立을 지켜야 하므로, 上下의 中心에 놓여야 한다.

## 2) 三陰三陽과 出入

身形 즉 사람의 形體는 형체 안에 내재되어 있는 오장의 활동이 氣의 凝集을 통해 구체적

醫學研究院 出版部, 1986. p.20. “夫言人之陰陽, 則外爲陽, 內爲陰. 言人身之陰陽, 則背爲陽, 腹爲陰(무릇 사람의 陰陽은 外部는 陽이고 內部는 陰이며, 사람 身形의 陰陽은 背部는 陽이고 腹部는 陰이다.)”

- 2) 黃元御, 上揭書, p. 28. “肝血溫升, 升而不已, 溫化爲熱, 則生心火. 肺氣清降, 降而不已, 清化爲寒, 則生腎水. …陰中有陽, 則水溫而精盈, 陽中有陰, 則氣清而神旺. …蓋陽氣方升, 未能化神, 先化其魂, 陽氣全升, 則魂變而爲神, 魂者, 神之初氣, 故隨神往來. 陰氣方降, 未能生精, 先生其魄, 陰氣全降, 則魄變而爲精, 魄者, 精之始基, 故並精而出入也.”
- 3) 洪元植 精校,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東洋

- 4) 洪元植 精校, 上揭書, p. 20. “背爲陽, 陽中之陽, 心也. 背爲陽, 陽中之陰, 肺也. 腹爲陰, 陰中之陰, 腎也. 腹爲陰, 陰中之陽, 肝也. 腹爲陰, 陰中之至陰, 脾也(등은 양이니, 陽中之陽은 心이다. 등은 양이니, 陽中之陰은 肺이다. 배는 음이니, 陰中之陰은 腎이다. 배는 음이니, 陰中之陽은 肝이다. 배는 음이니, 陰中之至陰은 脾이다)”
- 5) 白上龍, 時空間을 統合하는 陰陽五行, 서울: 제11차 국제동양의학 학술대회(The 11th International Congress of Oriental Medicine) 발표논문 2002.

으로 구현된 五體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오체는 신형을 형성하는 구조물이라고 할 수 있으며, 오체의 조합에 의하여 이루어진 신체는 다시 體幹과 四肢로 나눌 수 있다. 장부는 오체를 바탕으로 자기의 精氣를 담는 藏器를 형성하고, 또 보호받는다.

“몸의 形體와 分支의 마디는 藏과 府의 덮개이다.”<sup>6)</sup>

오체는 신형을 이루는 5가지 신체 구조물로 오장의 氣가 趣注하여 이루어진 구체적인 형태를 말하니, 곧 皮毛·血脈·筋膜·肌肉·骨髓 등이다. 이들 오체는 장부의 덮개로서 장부를 보호하지만, 동시에 오장의 생명활동이 外現化하여 體化된 것이다. 이 오체로 이루어진 신형은 6개의 층차로 분리되고 음양의 이치에 따라 고유한 자기의 이름을 갖는다. 이에 대하여 周學海는 『讀醫隨筆·三陰三陽名義』에서 다음과 같이 논하였다.

“人身 삼음삼양의 이름은 部位의 분화된 배열로 이름을 정하였으며, 氣血의 나뉘어진 성질로 뜻을 취함이 아니다.”<sup>7)</sup>

따라서 三陽은 陽部位의 三層을 나타내고 三陰은 陰部位의 삼층을 나타내니, 삼음삼양의 陰陽은 곧 신형 부위의 上下·內外를 지칭하는 용어임을 알 수 있다. 오체로 이루어진 신형은 내외·상하의 층차에 따라 음양의 形質이 나뉘어져 六層으로 구분되는 것이다. 『素問·陰陽離合論』에서는 이러한 삼음삼양의 분화과정과 위치·작용 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6) 洪元植 精校,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5. p.164. “身形支節者, 藏府之蓋也.”

7) 周學海, 讀醫隨筆,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57. “人身三陰三陽之名, 因部位之分列而定名, 非由氣血之殊性以取義也.”

“...앞쪽을 廣明이라고 부르고 뒤쪽을 太衝이라 부릅니다. 太衝의 바탕은 이름 少陰이라고 하고, 少陰의 위쪽은 이름을 太陽이라고 하니, ...신체의 중심을 기준으로 하여 위쪽을 廣明이라고 하니, 廣明의 아래는 이름을 太陰이라고 하고 太陰의 앞은 陽明이라고 합니다. 厥陰의 表部를 少陽이라고 하니, ...이러한 까닭으로 三陽이 나뉘고 합함에 太陽은 開機能을 하고 陽明은 闔機能을 하여 少陽은 지도리(樞) 기능을 합니다. 밖은 양이 되고 안은 음이 되니, 그렇게 때문에 가운데는 음이 되어 그 衝이 아래에 있게 되니, 이름을 太陰이라고 합니다. 태음의 뒤쪽은 이름을 소음이라고 하니, ...소음의 앞쪽은 꺾음이라고 하니, ...이러한 까닭으로 三陰이 나뉘고 합침에 太陰은 開機能을 하고 厥陰은 闔機能을 하여 少陰은 지도리 기능을 합니다.”<sup>8)</sup>

太陽은 신체의 최외부에 위치하여 陽部の 開가 되고 太陰은 陰部の 최외부에 위치하여 음부의 開가 되니, 각기 양부와 음부의 精神·氣血의 放出을 담당한다. 陽明은 양부의 내측에 위치하여 양부의 闔이 되고 厥陰은 신체의 최심부에 위치하여 음부의 闔이 되어, 각기 양부와 음부의 精神·氣血의 納入을 담당한다. 少陽은 태양과 양명 사이에 위치하여 양부의 樞가 되고 少陰은 태음과 꺾음 사이에 위치하여 음부의 樞가 되어, 각기 양부와 음부의 陰

8) 洪元植 精校, 精校黃帝內經素問, p.29. “...前曰廣明, 後曰太衝, 太衝之地, 名曰少陰, 少陰之上, 名曰太陽, ...中身而上, 名曰廣明, 廣明之下, 名曰太陰, 太陰之前, 名曰陽明, ...厥陰之表, 名曰少陽, ..., 是故三陽之離合也, 太陽爲開, 陽明爲闔, 少陽爲樞. ...外者爲陽, 內者爲陰, 然則中爲陰, 其衝在下, 名曰太陰, ...太陰之後, 名曰少陰, ...少陰之前, 名曰厥陰, ...是故三陰之離合也, 太陰爲開, 厥陰爲闔, 少陰爲樞.”

陽轉化를 조절하여 방출과 남입이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한다.

신형에서 氣의 운행과 작용을 관장하는 것은 經絡이다. 경락은 음양의 이치에 따라 삼음삼양 12經으로 분화하여, 각기 자기가 분포하고 流注하는 부위의 기의 작용과 성쇠를 주재한다. 그러므로 신형의 부위와 작용을 구분하는 삼음삼양의 部位別 層次와 開闔樞는 경락과 밀접한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하여 周學海는 『讀醫隨筆·三陰三陽名義』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부위가 이미 정해지면, 이로 말미암아 經絡 血氣가 태양의 부위에서 운행하는 것을 太陽經이라고 하고, 少陽·陽明의 부위에서 운행하는 것을 少陽·陽明經이라고 하며, 三陰의 부위에서 운행하는 것을 太陰·少陰·厥陰經이라고 한다.”<sup>9)</sup>

태양경을 태양경이라고 이름한 것은 인체의 최상외부인 태양부위에 흐르는 경락이기 때문이며, 양명경이나 소음경을 이렇게 이름한 것은 양명부위 또는 소음부위를 흐르면서, 그 부위의 기기활동을 주재하기 때문이다. 즉 삼음삼양의 六經 또한 신형의 삼음삼양 층차별 분화에 귀속되어진다는 것이다. 陽經은 신체의 양부로 유주하고 陰經은 신체의 음부로 유주해서, 신체의 前後·內外를 정하고, 手經과 足經으로 나뉘어 上下를 정한다. 다시 양경은 태양경·소양경·양명경으로 分化하여 양부의 외측·가운데·내측을 따라 흐르고, 음경은 태음경·궐음경·소음경으로 분화하여 음부의 외측·가운데·내측을 따라 흐름으로써, 각 경맥

들은 자기가 지배하는 縱的인 經氣의 통로를 확보한다.

그러므로 삼음삼양은 각기 신형의 양부와 음부를 분화하여, 경락을 매개로 인체 精氣와 天地之氣의 出入을 관장한다고 할 수 있다. 內外 氣의 출입은 하나의 생명체가 생명활동 과정 중에서 소모된 정기를 보충하고 부산물로 발생한 濁氣를 배설하는 내외 氣交의 과정이다. 이러한 정기와 탁기는 흡입되거나 배설될 때 始終이 나뉘므로, 이를 관장하는 삼음삼양도 용사를 할 때 先後가 나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하여 周學海는 『讀醫隨筆·升降出入』에서 다음과 같이 논하고 있다.

“대개 正氣의 出入은 궐음경으로 말미암아 소음경·태음경으로, 소양경·양명경·태양경 등으로 순환하면서 왕복하며, 六淫의 사기는 태양경으로 一步를 들어가고 다시 일보를 돌려 궐음경에 이르러 다하니, 이는 邪氣가 나아가 正氣가 퇴행하여 다시 外氣와 더불어 소통하지 못함이니, 그러므로 開·闔·樞 세 가지는 가장 요지가 된다.”<sup>10)</sup>

三陽經은 양부의 출입을 담당하고 三陰經은 음부의 출입을 담당하는데, 태양경은 신형의 外陽部에서 삼양경 중에 가장 외부에 위치하고 양명경은 그 내부에 위치하며, 소양경은 두 陽經의 중간에 자리잡는다. 마찬가지로 三陰經은 신형의 內陰部에서 태음경은 외부에 위치하고 궐음경은 그 내부에 위치하며, 소음경은 중간에 자리잡는다. 따라서 排出은 궐음경에서 시작하여 태양경에서 끝나고, 納入은 태

9) 周學海, 上揭書, p.57. “部位既定, 由是經絡 血氣之行於太陽之部者, 命曰太陽經, 行於少陽·陽明之部者, 命曰少陽·陽明經, 行於三陰之部者, 命曰太陰·少陰·厥陰經.”

10) 周學海, 上揭書, p.16. “蓋正氣出入, 由厥陰而少陰·太陰, 而少陽·陽明·太陽, 循環往復, 六淫之邪, 則從太陽, 入一步, 反歸一步, 至厥陰而極, 此邪氣進而正氣退行, 不復與外氣相通, 故開·闔·樞三者, 最爲要旨.”

양경에서 시작하여 꺾음경에서 끝나며, 精氣와 外氣는 이러한 과정 중에서 일진일퇴를 반복하는 것이다.

인체에서 기의 활동을 관장하는 經脈은 다시 음양의 공간적 위치에 따른 三陰三陽 분화에 따라 삼음경과 삼양경으로 나뉘고, 다시 상하의 분화에 따라 十二經脈으로 分支한 다음, 각기 그 위치에 따라 開·闔·樞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태양경·소양경·양명경·태음경·소음경·꺾음경 등의 層次로 定位되어진다.

### 3) 升降出入의 照應

생명체의 生命律動은 六氣 등 주변의 환경인자나 다른 개체와 완전히 독립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즉 율동을 일으키는 生氣(活力)는 바로 생명체의 생명활동을 고동하고 유지해주는 천지간의 음양 二氣이고, 생명체는 이 음양 二氣를 자기 안으로 흡수하고 또 밖으로 배설함으로써, 자기의 生命樞機를 고동시켜 살아가기 때문이다<sup>11)</sup>. 즉 하나의 생명체는 자기 내부에서 오행의 升降을 통해 神機를 유지하여 생명율동의 일정한 흐름과 강약을 유지하고, 체 내외로 음양의 出入을 통해 기의 흡수와 배

설을 조절함으로써, 천지와 氣交의 지속성을 유지하여 生長化收藏 또는 生長壯老已하는 생명의 순환·성쇠과정을 영위해나가는 것이다<sup>12)</sup>.

이때 내부의 생명율동을 추동하여 성장화수를 관장하는 것이 五藏이고, 외부의 출입 즉 氣交를 통해 성장장노이하는 것이 身形의 경락이다. 그러나 구성면에서 보면, 오장도 경락과 마찬가지로 형체의 한 부분으로 五體의 합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다만 오장은 深部に 위치하고 잠장한 오행지기를 五神의 의지를 통해 추동함으로써 자기의 특성을 升降의 굴신을 통해 드러내며, 삼음삼양 경락은 외부 신형을 분담하여 오장의 주재과정 중에 일어나는 소모된 精神氣血과 부차적으로 발생한 濁氣를 出入작용을 통해 보충 또는 배설할 뿐이다. 따라서 오장과 삼음삼양 경락은 서로 추동하고 보좌하는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오장과 경락의 내외 位置에 따른 음양의 분화에 의해 정해지니, 『素問·陰陽應象大論』과 「生氣通天論」 등에서 다음과 같이 논하고 있다.

“음은 내부에 있어 양이 지키고, 양은 외부에 있어 음이 부린다.”<sup>13)</sup>, “음은 精을 潛藏하여 極을 일으키고 양은 外形을 호위하여 견고하게 한다.”<sup>14)</sup>

11) 洪元植 精校, 上揭書, p.36. “天食人以五氣, 地食人以五味, 五氣入鼻, 藏於心肺, 上使五色脩明, 音聲能彰, 五味入口, 藏於腸胃, 味有所藏, 以養五氣, 氣和而生, 津液相成, 神乃自生.(하늘은 사람을 먹이는데 오기로써 하고 땅은 사람을 먹이는데 오미로써 하니, 오기가 코로 들어가 심폐에 잠장되어지면, 위로 오색이 수려하게 밝아지고 음성이 화창할 수 있으며, 오미가 입으로 들어가 장위에 잠장되어지면, 오미는 각자 잠장되는 곳이 있어 오기를 자양하니, 기가 화합하여 발생해서 진액이 서로 이루어짐에 생명의 神明이 이에 저절로 살아난다)”

12) 洪元植 精校, 上揭書, p.244. “出入廢, 則神機化滅, 升降息, 則氣立孤危. 故非出入, 則無以生長壯老已, 非升降, 則無以生長化收藏.(출입이 폐결되면 신기가 전화하여 소멸하고 승강이 종식되면 기립이 고립되어 위태로워지니, 그러므로 출입하지 않으면 생·장·장·노·이가 없어지며 승강하지 않으면 생·장·화·수·장이 없어진다.)”

13) 洪元植 精校, 上揭書, p.24. “陰在內, 陽之守也, 陽在外, 陰之使也.”

14) 洪元植 精校, 上揭書, p.16. “陰者, 藏精而起亟也, 陽者, 衛外而爲固也”

음인 오장은 내부에 위치하여 양인 신형경락의 보호를 받고, 신형경락은 오장의 주재를 받아 자기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하고 있는 것이다. 오장과 경락은 이렇게 내외로 위치를 나누고, 主將과 副將의 관계를 맺고 있지만, 오장의 의지와 기세가 구체적인 실체로 드러나려면, 경락의 共鳴이 필요하다. 이에 오장은 자기의 외현적인 代行者로서 특정 경락을 분속하고 있다<sup>15)</sup>. 이는 각 장이 자기만의 특성을 대변하는 특정 경락을 자기의 대행자로 삼음으로써, 분속되는 각 경락의 氣機의 역할이나 특성을 결정해줌을 나타내니, 오장의 神機와 경락의 氣立은 서로 互根이 되어 상생하는 관계를 맺어 생명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素問·五常政大論』에서 다음과 같이 논하고 있다.

“생명체 가운데에 뿌리박고 있는 것을 神機라고 하니, 神이 떠나면 機括이 그치고, 생명체 밖에서 근원하는 것을 氣立(氣機의 정립)이라고 하니, 氣가 그치면 生化가 끊어진다”<sup>16)</sup>

魂의 上升, 神의 發散, 意의 包容, 魄의 收斂, 志의 沈藏 등 오신의 의지에 의한 升降을 일으키는 오장의 기세 즉 神機가, 경락으로 유입하여 각 出入의 단계에 따른 기립의 계층적인 職分을 수행토로 하는 것이다. 이는 경락의 출입을 담당하는 삼음삼양의 계층적 분화가 오

장 五行之氣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것이 오장과 경락의 表裏관계이다.

이렇게 오장 각각은 개개의 경락과 分屬하여 자기의 기세를 개별적으로 발현하기도 하지만, 이러한 개별분화는 하나의 부단하면서 일관된 생명의 울동 즉 생명체의 전체적인 조화를 추구하는데는 부족함이 있다. 그러므로 오장은 分氣의인 기세를 발휘하면서도, 동시에 상생상극 등 서로의 역학관계를 통해서 개별적인 오행지기의 기세를 하나로 통합하여, 升降 屈伸하는 회전운동으로 神機의 律動을 추동한다. 승강의 신기가 하나의 고리처럼 꼬리에 꼬리를 물고 순환하여 하나의 屈伸하면서 순환하는 울동을 할 때, 이러한 내부 신기의 울동은 공간적 범주를 정해주는 신형의 삼음삼양에 의해 제한되어지며, 삼음삼양은 이를 내외의 단계적 반복원래로 전환하여 出入을 계층적으로 관장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樞機가 끊어져 신기의 生化가 멈추거나 身形이 파괴되어 범주가 무너져 氣立이 소멸하면, 생명울동은 종식되어 죽음을 맞게 된다<sup>17)</sup>.

오장과 경락이 자기 升降과 出入을 관장하면서, 하나의 생명울동으로 통일되어질 수 있는 것은, 空間的 場으로서 생명의 추기가 활동할 수 있는 範疇를 정해주는 身形(器)과 이 신형에 活氣를 불어넣어 주는 것이 오장의 추기가 서로 공조하기 때문이다. 단지 삼음삼양의 경락은 오장의 각 分氣를 모두 받아들이면서도, 그 경락의 속성에 따라 氣勢를 변형함으로써, 한정적인 범주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유지

15) 洪元植 精校, 上揭書, p.88. “黃帝, 問曰合人形以法四時五行而治, 何如而從, 何如而逆. …岐伯, 對曰五行者, 金木水火土也, 更貴更賤, …而定五藏之氣, 問甚之時, 死生之期也. …肝主春, 足厥陰少陽主治, …, 心主夏, 手少陰太陽主治, …, 脾主長夏, 足太陰陽明主治, …, 肺主秋, 手太陰陽明主治, …, 腎主冬, 足少陰太陽主治, …”

16) 洪元植 精校, 上揭書, p.257. “根于中者, 命曰神機, 神去則機息, 根于外者, 命曰氣立, 氣止則化絕…”

17) 洪元植 精校, 上揭書, p.244. “是以升降出入, 無器不有, 故器者, 生化之字, 器散則分之, 生化息矣(승강과 출입은 형체가 없으면 있지 않으니, 형체가 흩어지면 분열하여 생명의 氣化(生化)가 그친다).”

하면서 전체적인 울동의 조화를 추구해나갈 뿐이다.

따라서 오장의 오행지기는 자기의 분속 경락을 관장할 뿐만 아니라, 다른 경락 안에까지도 파급하여 자기 고유의 기세를 발현하니, 五藏之氣의 활동영역은 三陰三陽 전체가 되며, 삼음삼양은 오장지기가 升降屈伸하는 틀이 되어, 서로 조응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2. 五音과 律呂의 體用

五音은 말 그대로 木火土金水 등 오행의 음이고, 律呂는 六律六呂를 말한다. 『類經附翼·律原』에서는 오음과 율여의 출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논하고 있다.

“律은 소리로 말미암아 나오고, 음은 소리로써 생겨난다.”<sup>18)</sup>

따라서 오음이나 율여가 모두 사물이 발생하는 소리를 근원으로 하여, 分派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오음과 율여가 상통한 점도 있고 또 다른 점도 있음을 시사한다.

### 1) 五音의 屈伸

오음은 五聲이라는 자연의 다섯 소리로부터 추론되어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나 성과 음은 서로 분명한 차이가 있으니, 『禮記·樂記』에서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논하고 있다.

“무릇 음의 발기는 사람 마음으로부터 생겨나니, …(마음이) 외물에 감응하여 동요하므로 소리로 형상화되고, 소리가 서로 반응하므로 변화를 일으키니, 변화가 규율을 갖추면 음이

라고 한다.”<sup>19)</sup>, “소리가 文飾을 이루면 음이라고 한다.”<sup>20)</sup>

오음은 사람 마음의 변동으로부터 기원하는데, 어떤 사물에 감응하여 마음이 변동할 때 자연적으로 발생하여 울리는 소리가 五聲이라면, 이를 방 즉 일정한 規律로 정립한 것이 바로 五音이라는 것이다. 즉 오성의 원초적인 방향을, 오행의 이치와 기세에 따라 文飾을 가미하여, 일반적인 소리의 내재적인 규율로 정립해 놓은 音質이 바로 오음이다.

오음은 오음의 근원인 오성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성질을 가질 수밖에 없으며, 음양오행의 이치에 따라 각각 독특한 성향과 기세를 상징하도록 정립된 것이다. 따라서 모든 소리는 오음의 범주 안에서 귀납할 수 있으며, 사람이 내는 소리 또한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王氷은 『素問·陰陽應象大論』을 주석하면서, 오행과 오음의 相合과 氣勢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논하고 있다.

“각은 木음을 말하니 調達하면서 곧다. …치는 火음을 말하니 和樂하면서 미려하다. …궁은 土음을 말하니 크면서 和合한다. …商은 金음을 말하니 가벼우면서 堅硬하다. …우는 水음을 말하니 잠기면서 깊다.”<sup>21)</sup>

각음은 목성을 이어받은 것으로 ‘調而直’하고, 치음은 화성을 이어받은 것으로 ‘和而美’하며, 궁음은 토성을 이어받은 것으로 ‘大而和’하

19) 禮記 利·樂記, 대전:學民文化社, p.329. “凡音之起, 由人心生也, …感於物而動, 故形於聲, 聲相應, 故生變, 變成方謂之音”

20) 禮記 利·樂記, 上揭書, p.334. “聲成文, 謂之音”

21) 石田秀實, 素問次注集疏, 大阪:オリコソト出版社, 1987, pp.287~336. “角謂木音, 調而直也. …徵謂火音, 和而美也. …宮謂土音, 大而和也. …商謂金音, 輕而勁也. …羽謂水音, 沉而深也.”

18) 張介賓, 類經圖翼·類經附翼, 서울:大星文化社 影印, 1986. p.252. “律由聲出, 音以聲生”

고, 상음은 금성을 이어받은 것으로 '輕而勁'하며, 우음은 수성을 이어받은 것으로 '沈而深'하다. '調而直'은 節度가 있으면서 直達한다는 뜻이고, '和而美'는 和樂하면서 융성하다는 뜻이며, '大而和'는 대범하면서 和습한다는 뜻이고, '輕而勁'은 輕淸하면서 堅硬하다는 뜻이며, '沈而深'은 침잠하면서 深入한다는 뜻이다.

『素問·五常政大論』에서는 太過와 不及이 없는 화평한 오행지가의 用事할 때, 주재하는 각 分氣의 추동에 따라 일어나는 사물의 변화 및 기세·성질·작용 등과 오음의 배속에 대하여 논하고 있다.

“數和의 紀는 木德이 두루 운행하여 양이 퍼서 음이 포산하여 …, 그 氣가 단아하고 그 性이 隨順하며 그 작용이 曲直하고 …그 홉은 角이며, … 升明의 紀는 양이正大하게 다스려서 德의 베품이 두루 미쳐, …그 氣가 고명하고 그 性이 迅速하며 그 작용이 燔灼하고 …그 홉은 치이며, … 備化의 紀는 氣가 和協하여 천지가 휴식하고 德이 사정(모든 政令)에 흘러 …그 氣가 和平하고 그 性이 和順하며 그 작용이 오르내리며, …그 홉은 宮이며, … 審平의 紀는 수렴하면서 다투지 않아 치면서도 干犯함이 없으며, …그 氣는 淸潔하고 그 性은 剛健하며 그 작용은 散落하고, …그 홉은 商이며, … 靜順의 紀는 잠잠하면서도 해침이 없어 다스려져서 잘 순종하며, …그 氣는 幽明하고 그 性은 下循하며 그 작용은 沃衍하고, …그 홉은 羽이다.”<sup>22)</sup>

22) 洪元植 精校, 上揭書, pp.252~253. “數和之紀, 木德周行, 陽舒陰布, …, 其氣端, 其性隨, 其用曲直, …其音角, … 升明之紀, 正陽而治, 德施周普, …, 其氣高, 其性速, 其用燔灼, …其音徵, … 備化之紀, 氣協天休, 德流四政, …, 其氣平, 其性順, 其用高下, …其音宮, … 審平之紀, 收而不爭, 殺而無犯, …,

이를 음양 體用의 분화를 통해 분석해보면, 각음은 줄기가 퍼지듯이 곧게 퍼면서 밖으로 뻗어나가는 기세(曲直)를 가지고 있으니, 음 중에서 양기가 觸動하여 陽舒陰布)을 상징한다. 치음은 불타듯이 분열하여 한껏 발산하려는 기세(燔灼)를 가지고 있으니, 湧出한 양기가 사방으로 자기의 성세를 크게 펼쳐냄(正陽而治)을 상징한다. 궁음은 대지가 만물을 포용하듯이 커다랗게 모든 것을 감싸주려는 기세(德流四政)를 가지고 있으니, 음양이 融和되어 오고 감에 편향과 성급함이 없는 조화(高下)를 상징한다. 상음은 가을의 맑은 하늘처럼 가볍고 맑으면서도 안으로 剛健해지려는 기세(散落)를 가지고 있으니, 양 중에서 음기가 일어나 수렴을 시작하여 움츠리면서 堅硬해짐을 상징한다. 우음은 빠져들어 깊숙이 숨어드는 기세를 가지고 있으니, 음기가 깊숙이 가라앉으면서 잿이들을 상징한다.

따라서 角홉은 陽氣가 용사하여 기세가 直升하고, 徵홉은 양기가 용사하여 기세가 發散하며, 商홉은 음기가 용사하여 收斂하고, 우음은 음기가 용사하여 下陷하며, 궁음은 음양지가 화합하여 升降浮沈 등 어느 한쪽으로 치우침이 없다. 즉 각음과 치음은 陽氣가 용사하므로 모두 伸展을 일으키지만, 다시 각음은 直伸하고 치음은 橫伸하여 다름이 있다. 상음과 우음은 모두 陰氣가 용사하므로 모두 屈縮을 일으키지만, 다시 상음은 放屈하고 우음은 陷屈한다. 그리고 宮홉은 屈伸이 완만하게 반복하여 도리어 屈伸을 느끼지 못하게 한다. 오음은 각기 屈伸 정도의 각이 달라 서로 맞서고 있는 것이다.

其氣潔, 其性剛, 其用散落, …其音商, … 靜順之紀, 藏而勿害, 治而善下, …, 其氣明, 其性下, 其用沃衍, …其音羽.”

## 2) 律呂의 高低

律呂는 六律과 六呂의 준말이고 十二律이라고도 하며, 오음과 마찬가지로 소리로부터 생겨난 것이다. 율여는 또 음양으로 분류할 수 있으니 律은 陽 呂는 陰이다. 이를 오음과 대비하면, 오음은 날마다 뜨고 지는 해에 비유할 수 있고, 율여는 달의 朔望으로 1주기를 삼는 12개월에 비유할 수 있다<sup>23)</sup>.

율여와 오음의 평면적인 관계에 대하여 『類經附翼·三分損益』에서는, ‘黃鍾은 궁음·林鍾은 치음·太簇은 상음·南呂는 우음·姑洗는 각음’ 등으로 배합<sup>24)</sup>하고 있으며, 또 ‘黃鍾같은 경우는 궁음이니 궁음은 五音의 君主이다<sup>25)</sup>’라고 하고 있다. 이로 보면 율여가 오음과 같은 계통인 것으로 오인하기 쉽다. 그런데 다시 『類經附翼·一律生五音』에서 이들의 차이점에 대하여 논함으로써 이러한 의구심을 불식시키고 있다.

23) 張介賓, 上揭書, p.253. “律乃天地之正氣, 人之中聲也. 律由聲出, 音以聲生. …音之數五, 律之數六, 分陰分陽, 則音以宮商角徵羽而爲十, 故音以應日, 律以黃鍾太簇姑洗蕤賓夷則無射爲陽, 是爲六律, 林鍾南呂應鍾大呂夾鍾仲呂爲陰, 是爲六呂. 合而言之, 是爲十二律, 故律以應辰. …(율은 이에 천지의 정기이며 사람의 중성이다. 율은 소리로 말미암아 나오고 음은 소리로서 생겨나는데, …음의 수는 다섯이고 율의 수는 여섯이며, 음으로 나누고 양으로 나누면, 음은 궁·상·각·치·우로써 열이 되므로 음은 해에 상응하며, 율은 황종·태주·고선·유빈·이척·무역으로 양에 배속하니 이는 육율이고, 임종·남여·응중·대여·협종·중여로 음에 배속하니 이는 육여이다. 이는 십이율이 되므로 율로써 십이진(십이개월)에 상응하고, …)”

24) 張介賓, 上揭書, p.257.

25) 張介賓, 上揭書, p.256. “如黃鍾爲宮, 宮者, 音之君也, 一陽之律也. …(황종이 궁음이 되는 것 같은 경우는 궁음은 음의 군주이고 一陽의 율이니, …)”

“십이율은 각기 그 궁음을 따라 四聲을 일으킨 이후에 六十律의 소리가 갖추어지니, 황종으로써 지정하여 궁음을 삼고 태주로써 지정하여 상음을 삼으며 고선으로써 지정하여 각음을 삼고 임종으로써 지정하여 치음을 삼으며 남여로써 지정하여 우음을 삼음이 아니다. 예로 황종은 (十二支 중) 子에 속하지만 子는 다섯이 있으니, 甲子는 치음이고 丙子는 우음이며 戊子는 궁음이고 庚子는 각음이며 임자는 상음이니, 이는 黃鍾의 五聲이다.”<sup>26)</sup>

십이율도 오음과 마찬가지로 宮음을 기본으로 하여 나머지 四聲을 일으키지만, 다시 각 율여마다 宮商角徵羽 오음이 다 들어있다는 것이다. 즉 오음의 다섯 가지 성질은 律呂 각각을 개별적으로 만남으로써 각자 다시 12개로 나뉘어져 각기 60율의 성으로 완비된다고 하였으니, 십이율은 바로 오음의 다양한 변화를 끌어내 주는 지포가 된다고 할 것이다. 즉 五音과 六律은 같은 근원에서 나왔지만, 그 용도나 역할이 서로 다름을 알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오음은 그 자체 내에서 서로 氣勢가 달라 屈伸의 정도에 차이가 있어, 각자 자기만의 독특한 반향을 일으킬 수 있다. 오음 자체만으로 충분히 五聲의 특성을 발현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律呂가 상합하는 것은 어떤 이치가 있는 것인가. 이에 대하여 『類經附翼·三分損益』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그렇지만 音은 다섯에 그쳐 오히려 그 변화를 다하기에 부족하니, 이로 말미암아 대나무

26) 張介賓, 上揭書, pp.257~258. “十二律, 各就其宮以起四聲, 而后六十律之聲備, 非以黃鍾定爲宮, 太簇定爲商, 姑洗定爲角, 林鍾定爲徵, 南呂定爲羽也. 如黃鍾屬子, 子有五焉, 甲子徵, 丙子羽, 戊子宮, 庚子角, 壬子商, 此黃鍾五聲也.”

를 잘라 관을 만들어 십이율을 제정하여 십이월에 상응하게 하여, ...”<sup>27)</sup>

음은 다섯 종류의 音質로 이를 통해 모든 소리를 상징화할 수는 있지만, 서로 관계를 맺으면서 파생하는 변화를 다 발현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이를 六律을 통해 구현해낼 수 있다는 것이다. 모든 소리의 성질을 근간으로 음양오행의 법칙에 따라 다섯으로 분화하여 정립된 오음은 각자 자기만의 색깔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음양오행의 변화는 서로 상생상극의 承制生化<sup>28)</sup>이치에 따라, 시간의 흐름을 타고 서로 영향을 미치고 받으면서 끊임없이 변화해나간다. 즉 오음의 다섯 음질은 서로 관계를 끊고 독존해 있는 단현 음이 아니라, 그 태생부터 변화를 일으키는 기전에 이르기까지 서로 끊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오음 자체는 이미 자기의 독자적인 성질로 특화되어 分節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그 자체로는 서로 承制生化하는 변화를 추동하기 어렵다. 이러한 변화의 부족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律呂의 역할로 보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孟子』는 사물의 형태를 측정하거나 묘사할 때 기준으로 쓰는 잣대에 비유하여 다 음과 같이 논하고 있다.

“성인이 이미 눈의 시력을 다하고 이어서 規·矩·準·繩으로써 각도와 원·수평과 수직을 잡아야 (변형이 다양하여) 이겨 쓸 수 없으며, 이미 귀의 청력을 다하고 이어서 육율으로써 오음을 바르게 해야 이겨 쓸 수 없으며, ...

27) 張介賓, 上揭書, p.256. “然音止于五, 猶不足以盡其變, 由是截竹爲管, 作十二律以應十二月, ...”

28) 洪元植 精校, 上揭書, p.242 “亢則害, 承乃制, 制則生化(…항성하면 위해가 생겨나므로 계승하여 이에 제어하니, 제어하면 생화가 일어나고, ...).”

.”<sup>29)</sup>

시력으로 관찰할 수 있는 사물의 형태가 規矩準繩 등 잣대를 활용함에 따라 아주 다양한 모습으로 구현되듯이, 청력으로 듣는 소리도 六律로써 오음을 어떻게 裁斷하느냐에 따라 이루어 헤아릴 수 없이 다양한 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율여가 오음의 음질을 자기의 위치와 속성에 맞추어 다양한 音色으로 정립해 주고 있으니, 다섯 가지에 지나지 않은 오음이 율여를 만났을 때는 아주 많은 변화를 발현하여 천지의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율여를 열거하면, 陽律[육율]은 황종·태주·고선·유빈·이척·무역 등이며, 陰呂[육여]는 임종·남여·응종·대여·협종·중여 등으로, 앞의 6개는 양에 속하고 뒤의 6개는 음에 속한다. 張景岳은 『類經附翼·律候陰陽相生』에서 율여의 발생과정과 음양의 속성 및 각각의 위치나 성질에 대하여 두 가지 학설을 예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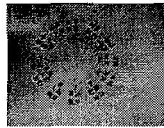
“鄭世子는 “양율은 음을 낳는데 밑에서부터 낳기 시작하고, 음율은 양을 낳는데 위에서부터 낳기 시작한다. 음양의 분화는 그러므로 두 가지 학설이 있다. 한가지 학설은 十二律呂가 각기 방위를 조감하니, 子午의 동쪽은 양에 속하고 자오의 서쪽은 음에 속한다. 이러한 까닭으로 子方의 황종은 一陽의 復卦이고 丑方의 대여는 二陽의 臨卦이며, 寅方의 태주는 三陽의 泰卦이고 卯方의 협종은 四陽의 大壯卦이며, 辰方의 고세는 五陽의 夬卦이고 巳方의 중여는 六陽의 乾卦이다. 午方의 유빈은 一陰의

29) 孟子, 孟子集註, 明文堂, 1986, 서울. p.324. “聖人既竭目力焉, 繼之以規矩準繩, 以爲方員平直, 不可勝用也, 既竭耳力焉, 繼之以六律正五音, 不可勝用也,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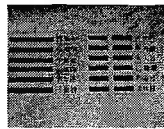
姤卦이고 未方の 임종은 二陰의 遁卦이며, 申方の 이치는 三陰의 否卦이고 西方의 남여는 四陰의 觀卦이며, 戌方の 무역은 五陰의 剝卦이고 亥方の 응종은 六陰의 坤卦이다. 乾卦는 老陽이므로 중여는 亢升이 극진하여 남음이 없고 곤괘는 老陰이므로 응종은 극단적으로 짧아 끊어 된다. 대여·협종·중여 등 三모는 음으로써 陽方에 거처하므로 모두 양에 속하고, 유빈·이척·무역 등 三律은 양으로써 陰方에 거처하므로 모두 음에 속한다. 무릇 律 중 맑은 것은 모두 위로부터 낳고 탁한 것은 모두 아래로부터 낳는다"고 하니, 이것이 하나의 학설이다. 또 일설에는 "육울은 奇數로 양에 속하고 육여는 偶數로 음에 속하니, 이러한 까닭으로 子인 황종은 건괘의 初九이고 寅인 태주는 九二이며, 辰인 고선은 九三이고 午인 유빈은 九四이며, 申인 이척은 九五이고 戌인 무역은 上九이다. 이는 육울로 기수이며 각기 本位가 양에 속한다. 卯인 임종은 곤괘의 初六이고 卯인 남여는 六二이며, 巳인 응종은 六三이고 未인 대여는 六四이며, 酉인 협종은 六五이고 亥인 중여는 上六이다. 이는 육여로 우수이며, 각기 對衝에 거하여 음에 속한다. 본위에 거하는 것은 모두 아래로부터 낳기 시작하고, 대충에 거하는 것은 모두 위로부터 낳기 시작한다"고 하니, 이것이 또한 한가지 학설이다. 이상 두 가지 학설은 한 대부터 지금까지 시비가 가려지지 않았다.<sup>30)</sup>

30) 張介賓, 上揭書, p.255. "鄭世子, 曰按陽律生陰, 下生, 陰律生陽, 上生. 陰陽之分, 故有二說. 其一說者, 十二律呂, 各照方位, 在子午以東屬陽, 子午以西屬陰. 是故子黃鍾, 一陽復卦, 丑大呂, 二陽臨卦, 寅太簇, 三陽泰卦, 卯夾鍾, 四陽大壯卦, 辰姑洗, 五陽夬卦, 巳仲呂, 六陽乾卦, 午蕤賓, 一陰姤卦, 未臨鍾, 二陰遁卦, 申夷則, 三陰否卦, 西南呂, 四陰觀卦, 戌無射, 五陰剝卦, 亥應鍾, 六陰坤卦, 乾

이들 두 가지 학설을 특징에 따라 이름을 붙여보면, 앞의 학설은 子午方位配合說이라고 할 수 있으며, 뒤의 학설은 乾坤上下配合說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도표로 그려보면 다음과 같다.



【도표-1, 子午方位配合圖】



【도표-2, 乾坤上下配合圖】

양울은, 자오방위배합설에서는 황종이 子方인 北方에 위치하여 시초가 되고, 중여가 사방인 南南東方에 위치하여 종결이 되며, 건곤상하배합설에서는 初九인 황종이 최하부에 위치하여 一陽의 시작을 알리고, 무역이 最上部에 위치하여 陽位의 종지를 알린다. 음여는, 자오

爲老陽, 故仲呂亢極不生, 坤爲老陰, 故應鍾極短爲終. 大呂·夾鍾·仲呂, 三呂以陰居陽, 故皆屬陽. 蕤賓·夷則·無射, 三律以陽居陰, 故皆屬陰. 凡律清者皆上生, 濁者皆下生, 此一說也. 又一說, 云六律數奇屬陽, 六呂數偶屬陰. 是故子黃鍾, 乾之初九, 寅太簇, 乾之九二, 辰姑洗, 乾之九三, 午蕤賓, 乾之九四, 申夷則, 乾之九五, 戌無射, 乾之上九. 此六律數奇, 各居本位屬陽也. 丑臨鍾, 坤之初六, 卯南呂, 坤之六二, 巳應鍾, 坤之六三, 未大呂, 坤之六四, 酉夾鍾, 坤之六五, 亥仲呂, 坤之上六. 此六呂數偶, 各居對冲屬陰也. 居本位者, 皆下生, 居對冲者, 皆上生, 此又一說也. 以上二說, 自漢至今, 是非不決."

방위배합설에서는 유빈이 午方인 南方에 위치하여 시초가 되고 응중이 亥方인 北北西方에 위치하여 종결이 되며, 건곤상하배합설에서는 上六인 중여가 최상부에 위치하여 一陰의 시작을 알리고, 初六인 임중이 최하부에 위치하여 종지를 알린다. 두 가지 학설은 서로 차이가 있지만, 몇 가지 면에서 동일한 점이 있다. 첫째, 두 학설이 모두 陽律과 陰呂의 배분에서 일치한다는 점이고, 둘째 十二律의 기시점을 黃鍾으로 보고 있는 것<sup>31)</sup>이며, 셋째 東西南北으로 배열하든 아니면 上下로 배열하든, 모두 空間的 位置나 層次를 지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끝으로 율과 여가 서로 음양이 교차하여 배열되고 있다.

이로 보면, 율여가 오음의 다섯 음질을 60개에 이르는 다양한 음색의 소리로 표현해주는 것이 바로 律呂의 層次的 配列과 陰陽의 屬性이 다른 이유 때문임을 알 수 있다. 기본적으로 동일한 음질을 가진 음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위치 어떤 성질의 律 또는 呂에서 발현하는가에 따라 서로 다른 음색의 소리를 일으킨다고 할 수 있다. 또 오음과 율여는 서로 相勝하거나 相殺하는 작용이 있어 음질을 더욱 풍부하게 해준다. 이는 율여와 오음에 공유점이 있기 때문이다. 둘 다 소리를 기반으로 정해진 것이며, 율여의 위치와 오음이 기세가 다르면서도 많은 부분에서 동질성이 있기 때문이다. 예로 낮은 위치는 포용하는 성질이 있고 높은 위치는 수렴하는 성질이 있으며, 중간 위치는

방향에 따라 상승 또는 하강하는 성질을 띌 수 밖에 없는데, 오음의 기세 또한 그러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오음의 음색은 더더욱 다양하게 분화할 수 있다. 또 오음이 양음에서 발동하면 陽性이 강해져 활달해지고 음음에서 발동하면 陰性이 강해져 정숙해지는 등이다<sup>32)</sup>.

따라서 율여는 음양의 이치에 따라 여섯 개의 양과 여섯 개의 음으로 나뉘어진 層次的의 단계로, 오음이 屈伸할 수 있는 공간적 起伏의 기준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음악학적 용어를 빌리자면 서양음악의 音階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 3) 聲音의 再現-音樂

음악은 기구를 통한 聲音의 재현이며, 樂器를 통해 발양한다<sup>33)</sup>. 그러나 이는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재현자의 의도를 소리를 통해 반영하는 하나의 표현양식이다. 『禮記·樂記』

32) 張介賓, 上揭書, p.258. “律感呂而聲生, 呂感律而音生. 故聲爲律, 律爲陽, 律有辟翕, 音爲呂, 呂爲陰, 呂有唱和. 律隨天而變, 呂隨地而化, 辟隨陽而出, 翕隨陰而入, 唱隨剛而上, 和隨柔而下. 然後律呂隨聲音, 宮徵羽角之道, 各得其正矣(율의 여에 감응하여 소리[聲]가 일어나고 여가 율에 감응하여 음이 일어나므로, 성은 율이 되고 율은 양이 되는데, 율에는 辟翕[열고 닫음]이 있고, 음은 여가 되고 여는 음이 되는데, 여에는 唱화[부르고 화답함]가 있다. 율은 하늘을 따라 변하고 여는 땅을 따라 化하며, 辟은 양을 따라 나오고 翕은 음을 따라 들어가며, 唱은 剛을 따라 오르고 和는 柔를 따라 내린다. 그러한 후에 율여는 聲音을 따르므로 궁상각치우의 법도가 각기 바름을 얻는다.)”

33) 禮記 利·樂記, 上揭書, p.331. “聲相應, 故生變, 變成方, 謂之音, 比音而樂之, 及于戚羽旄, 謂之樂(소리가 서로 반응하므로 변화를 일으키니, 변화가 규율을 갖추면 음이라고 하며, 음에 비류하여 악기로 연주하고 간·척·우·모로 미치어 무도하면 樂이라고 한다.)”

31) 張介賓, 景岳全書, p.253. “律呂皆生于黃鍾, 而黃鍾爲萬事之本, 一陽之律也. 黃者, 土德之色, 鍾者, 氣之所種, 所以言其本也(율여는 모두 황종에서 생겨나고 황종은 만사의 근본이 되니 일양의 율여이다. 황색은 土德의 색이며 종은 氣가 뿌리를 내리는 바이니, 그 근본을 말하는 바이다.)”

에서는 이러한 음악의 발원에 대하여 사람 마음의 感應때문이다<sup>34)</sup>라고 하였다.

음악은 사람의 마음을 소리와 리듬을 통해 재현해준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성정에 굴곡과 완급이 있듯이, 음악 또한 승강과 서질이 있는데, 단지 음악은 악기라는 인공적인 기구를 사용하여 의도적으로 리듬과 소리를 일으킨다<sup>35)</sup>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그리고 여기에는 소리의 흐름과 굴신을 인도하는 오음과 고정장단을 정해주는 율여가 있어,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소리의 성격과 흐름에 일관성을 부여했다는 것이다. 즉 음악은 자연의 소리에 대한 단순한 재현이 아니라, 이를 만든 인간의 理性的 혹은 感情的 의도가 깊숙이 들어 있는 것이다. 이는 『呂氏春秋』와 『禮記』에서 언급한 몇 마디로 짐작해 볼 수 있다.

“무릇 음악은 천지의 화기이고 음양의 조율이다<sup>36)</sup>, “큰 음악은 천지와 더불어 함께 화합하니, …음악은 천지의 화기이니, …화합하므로 百物이 모두 절도를 잃지 않는다.”<sup>37)</sup>

사람은 본래 천지의 화기를 받아 태어났지만, 부모의 정기를 받거나 살아가는 과정에서 천지로부터 받은 화기를 해치기 쉽다. 음악은 이렇게 해침을 당한 화기를 다시 복원해준다는

뜻이 들어 있다. 음악은 단순히 소리를 재현하는 발생방법이 아니라 이들의 和翕을 중시하여, 이를 통해 변동된 사람의 神機를 조절하여 和平을 추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음악을 통한 음의 조화로운 율동으로, 사람 神機의 왜곡된 변고를 조절하여 氣機의 화평을 이끌어낸다는 것이다. 『類經附翼·律解』에서는 오음과 율여 및 사람의 性情이 음악 안에서 어떻게 합치되는가에 대하여 논하고 있으니, 다음과 같다.

“음악은 天地의 和平한 氣이다. 律呂는 音樂의 聲音이다. 대개 사람에게 性情이 있으면 詩辭가 있고, 詩辭가 있으면 歌咏이 있으며, 歌咏이 생겨나면 오음을 입혀서 음악을 만드는데, 음악이 생겨날 때에는 반드시 율여로써 조절해서 성음을 화순하게 해야 한다.”<sup>38)</sup>

음악은 천지간의 기의 화평한 動靜으로, 사람의 性情이 소리를 통해 발현할 때, 오음을 입혀 소리의 성질을 결정하고, 율여로써 이를 조절하여 和順하게 한 것이다라고 하고 있다. 따라서 오음과 율음은 음악의 이치적 근간을 구성하는 두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오음의 屈伸을 통해 나타나는 서로 다른 음질은 율여의 高低를 통해 제어되어, 일정한 범주 안에서 상하로는 升降을 전후로는 徐疾을 반복하면서 일정한 흐름을 타게 된다. 율여의 높낮이[고저]는 오음이 굴신할 수 있는 공간적 위치를 제한하거나 규정해주며, 오음은 율여 안에서 자기의 기세를 발현함으로써 율동의 조화로우음을 보존할 수 있고 소리가 화순해진다<sup>39)</sup>.

34) 禮記 利·樂記, 上揭書, p.331. “樂者, 音之所由生也, 其本, 在人心之感於物也(樂은 음이 말미암아 발생하는 바이니, 사람의 마음이 외물에 감응하는데 있다.)”

35) 禮記 利·樂記, 上揭書, p.361. “故鍾鼓管磬羽籥干戚, 樂之器也, 屈伸俯仰綴兆徐疾, 樂之文也.(그러므로 종·고·관·경·우·악·간·척은 음악의 기구이고, 굴신·부양·철조·서질은 음악의 꾸밈이다.)”

36) 王范之, 呂氏春秋選注, 中華書局, 1981, 北京, p.56. “凡樂, 天地之和, 陰陽之調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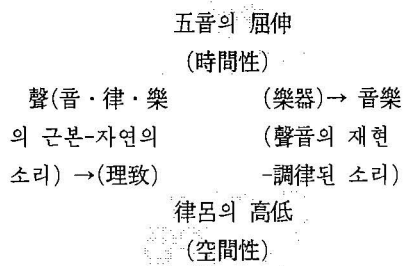
37) 禮記 利·樂記, 上揭書, pp.357~358. “大樂與天地同和, …樂者, 天地之和也, …和故百物皆不失節”

38) 張介賓, 上揭書, p.252. “樂者, 天地之和氣也, 律呂者, 樂之聲音也, 蓋人有性情, 則有詩辭, 有詩辭則有歌咏, 歌咏生則被之五音而爲樂, 音樂生必調之律呂而和聲.”

39) 鄭玄 撰, 周禮鄭氏註, 山東友誼書社, 1992, 中國, pp.410~411. “大師, 掌六律

따라서 음악은 천지간의 화평한 기운으로 五聲으로부터 출발하였지만, 오음의 音質이 율이라는 律動의 규격에 맞추어 和翕하게 발현한 것이며, 두 가지 방식으로 생산할 수 있는데, 하나는 사람의 음성으로 표현하는 노래이고 하나는 악기를 통해 생겨나는 음향이다. 이를 도표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도표 3-聲·音·律呂·樂의 상관도】



### 3. 三陰三陽과 律呂의 統一

오장과 삼음삼양은 서로 表裏가 되니, 오장지기는 升降을 통해 자기의 추기를 유지하면서 다시 삼음삼양의 身形 층차를 거쳐 體內外로 出入하여, 生命之氣의 조화로운 율동을 영위해 나간다. 삼음삼양은 陰陽의 위치 및 關闔樞의 役割分化에 따라 자기가 위치한 신형의 層次로 구분되어 독특한 개성을 가지고 있어, 그 부위

六同, 以合陰陽之聲, 陽聲黃鍾太簇姑洗蕤賓夷則無射, 陰聲大呂應鍾南呂林鍾仲呂夾鍾, 皆文之以五聲, 宮商角徵羽, 皆播之以八音金石土革絲木匏竹(태사가 육울과 육동을 장악하여 음양의 소리를 합치시키니, 陽聲인 황중·태주·고선·유빈·이척·무역 등과 陰聲인 대여·응중·남여·임중·중여·협중 등은 모두 오성으로써 꾸며지고, 궁·상·각·치·우 등은 모두 八音인 금·석·토·력·사·목·박·죽 등으로써 퍼뜨린다).“

에서 율행하는 精氣의 출입과 동정을 조정한다. 또 上下의 분포부위에 따라 手足으로 나뉘어, 신형 전체에서 일어나는 氣機의 행로를 열어줌으로써, 인체 정기의 율행순서와 율행통로가 생명의 목적에 맞도록 조절해준다.

五音과 律呂는 서로 體用이 되니, 오음이 각자 독특한 음질로 소리의 성격을 규정해준다면, 율어는 오음이 屈伸할 수 있는 고저를 세워주는 터전으로, 오음이 다섯 음이 발동하는 위치에 따라 다양한 音色으로 발현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오음이 屈伸하는 영역의 한계를 규정함으로써, 和氣가 깨어지지 않도록 조절해준다.

오장지기의 성격과 오음지성의 음질은 모두 오행의 이치에 따라 특성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하나는 인체 생명지기의 추동을 일으키는 근원이고 하나는 소리의 반향을 일으키는 본성이라는 것을 제외한다면, 나머지는 서로 상합한다. 마찬가지로 삼음삼양의 十二經脈과 陽律陰呂의 十二律도 음양의 분화이치에 따라, 空間을 분할하고 자기 위치에서 律動하는 氣의 성격을 결정한다는 면에서 일치한다. 단지 십이경맥은 인체의 身形을 분할하여 지배하고, 십이울은 소리의 假想的인 領域을 분할하여 지배한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따라서 『靈樞·經別』에서는 이러한 삼음삼양의 십이경맥과 십이울여의 관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논하여, 두 단위가 본질적으로 동일한 이치에서 파생되어 나왔으며, 동일한 목적을 추구하고 있음을 나타내었다.

“내가 들었는데, 사람은 天道에 합치하여, 안에 오장을 두어 오음·오색·오시·오미·오위 등에 상응하고, 밖으로는 육부를 두어 육울에 상응하니, 육울이 음양의 제 경맥을 건립하

여 십이월·십이진·십이절·십이경수·십이시·십이경맥에 합치하니, 이는 오장육부가 천도에 상응하는 바입니다.”<sup>40)</sup>

인체에서 三陰三陽은 체내외의 氣가 서로 交際할 때, 출입의 각 단계를 관장하는 層次領域이니, 바로 身形經絡의 부위와 성질을 결정한다. 또 체내로부터 체외로 이르기까지, 일정한 高低內外의 단계적 차이가 있다. 이에 비하여 오장은 체내 기기의 기세를 승강부침의 生命樞機를 작동함으로써, 생명운동의 영속적인 흐름을 주도한다. 그러나 오장의 升降浮沈은 삼음삼양의 分界를 벗어날 수 없으니, 삼음삼양의 分界를 벗어난다는 것은 생명운동의 영역인 身形의 器局을 벗어난다는 것이며, 이는 생명운동의 파괴 죽음으로 이어진다. 이는 律呂가 陰中 三陰三陽과 陽中 三陰三陽으로 분화하여 오음의 律動限界를 제한하고, 만약에 이를 벗어난 오음의 발현이 천지의 화기를 파괴하여 이미 音樂이라고 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따라서 律呂와 三陰三陽은 음양의 분화라는 같은 이치에서 출발하여, 十二라는 동일한 層次의 數로 정립되었으며, 대상만 달리 할 뿐 그 동일한 性格으로 동일한 役割을 수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단지 담당하는 氣(生命之氣와 聲音之氣)의 차이에 따라 다른 형태로 나누어졌을 뿐이다. 이는 둘의 관계가 언제든지 서로 교차시켜 照應할 수 있는 동일한 性分임을 말해주니, 논리적 또는 실재적으로 음악을

통한 생명지기의 조율이 가능함을 보여준다.

### III. 結 論

지금까지 의학과 음악학에서 아주 중시받고 있는 용어이자 개념이며 실체인 삼음삼양과 십이율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고찰해보고, 한방 음악치료의 논리적인 가능성에 대하여 타진해보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인체에서 기의 활동을 관장하는 經脈은 음양의 공간적 위치에 따른 三陰三陽 분화에 따라 태양경·소양경·양명경·태음경·소음경·厥음경 등의 層次로 定位되어지며, 오장지기가 升降屈伸하는 틀이 된다.

2. 율어는 음양의 이치에 따라 여섯 개의 양과 여섯 개의 음으로 나뉘어진 層次의 단계로, 三陰三陽의 십이개로 분화한 것과 수가 일치하는데, 오음이 屈伸할 수 있는 공간적 터전 곧 高低의 기준이 되며, 음악학적 용어를 빌리자면 서양음악의 音階가 여기에 해당된다.

3. 음악은 천지간의 화평한 기운으로 五聲으로부터 출발하였지만, 오음의 音質이 율어라는 律動의 규격에 맞추어 和翕하게 발현한 것이며, 두 가지 방식으로 생산할 수 있는데, 하나는 사람의 음성으로 표현하는 노래이고 하나는 악기를 통해 생겨나는 음향이다.

4. 律呂와 三陰三陽은 음양의 분화라는 같은 이치에서 출발하여, 十二라는 동일한 層次의 數로 정립되었으며, 대상만 달리 할 뿐 그 동일한 性格으로 동일한 役割을 수행하고 있다. 단지 담당하는 氣(生命之氣와 聲音之氣)의 차이에 따라 다른 형태로 나누어졌을 뿐이다. 따라서 둘의 관계는 언제든지 서로 교차시켜

40) 洪元植 精校, 精校黃帝內經靈樞, p.97. “余, 聞人之合於天道也, 內有五藏, 以應五音五色五時五味五位也. 外有六府, 以應六律. 六律建陰陽諸經, 而合之十二月十二辰十二節十二經水十二時十二經脈者, 此五藏六府之所以應天道.”

照應할 수 있는 동일한 性分으로, 한방음악치료 즉 음악을 통한 生命之氣의 조율을 가능하게 해주는 근간으로 이용되어질 수 있다.

#### IV. 參 考 文 獻

1. 石田秀實, 素問次注集疏, 大阪:オリコソト出版社, 1987.
2. 禮記 利·樂記, 대전:學民文化社.
3. 張介賓, 類經圖翼·類經附翼, 서울:大星文化社 影印, 1986.
4. 周學海, 讀醫隨筆,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5. 洪元植 精校,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6.
6. 洪元植 精校,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5.
7. 黃元御, 黃元御醫書十一種·四聖心源, 北京:人民衛生出版社, 1990.
8. 白上龍, 時空間을 統合하는 陰陽五行, 서울:제11차 국제동양의학 학술대회(The 11th International Congress of Oriental Medicine) 발표논문, 2002